2022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특별기획

THE EXHIBITION of

ARTISTIC SPIRIT : BEYOND TIME AND SPACE

예술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 展



김건국

KIM, KON-KUK



김호원

KIM, HO-WON



조병연

CHO, BYUNG-YEON



조용백

CHO, YONG-BAEK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2022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특별기획

THE EXHIBITION of

ARTISTIC SPIRIT : BEYOND TIME AND SPACE

예술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 展

2022. 11.4 금 – 2023. 1.24 화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주최 주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 061-270-8300



목포시장
박홍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의 ‘예술정신 : 시간과 공간을 넘어...’展 개최를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참신하고 독창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며 전시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획 전시회를 위해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조용백, 조병연, 김호원, 김건국 작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은 그동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전시회를 기획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자극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남도의 애환을 서사하는 지역 유명 작가 4인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수묵의 아름다움은 물론, 독특한 질감과 기법으로 표현된 수준 높은 작품들을 통해 남도 미술의 본질과 목포 미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향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써 관람객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해보길 바라며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과 참여 작가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4.



목포시의회 의장
문 차 복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가을입니다. 2022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특별기획전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다양하고 많은 전시회들이 연달아서 개최되고 있는 것은 예향,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목포의 도시 브랜드가 결코 허상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훌륭한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목포시민들은 계절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일상 속에서 문화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내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미적 가치를 탐구함으로써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목포시민의 예술적 정서를 높이는 전시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고대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목포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인의 작품들로 구성한 특별기획전입니다. 독특한 화풍으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 11. 4.

2022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특별기획

예술정신 : 시간과 공간을 넘어 展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전남-공립13-2014-01호)은 다가오는 연말연시 시즌을 맞이하여 특별기획전시 〈예술정신 : 시간과 공간을 넘어〉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목포 미술의 활성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독자적인 화풍으로 남도의 애환을 서사하는 김건국, 김호원, 조병연, 조용백 작가 참여로 특별기획되었다.

예술은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감수성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예술가의 특별한 노력과 탐구, 발견의 결과로 창조된다. 〈예술정신 : 시간과 공간을 넘어〉는 4인 예술가의 창의적인 정신으로 주위의 사물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색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테크닉을 발명하여 탄생된 작품들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아우라를 발산한다.

근 · 현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목포의 정겨운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김건국** 작가는 유달산과 목포항, 서산 · 온금동의 골목길 전경, 유서 깊은 삼학도 등을 탐구하며 포착한 이미지에 부드러운 색채와 질감으로 옛 추억 소환과 함께 내면의 깊은 감성을 자극한다.

> "항구 도시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목포 앞 바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바라만 보아도 가슴 설레게 하는 목포의 풍경은 정겹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삶과 그 안에 살아있는 무수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다."
>
> *- **김건국** 작가노트 中에서 -*

김호원 작가는 어린 시절 고향 보길도의 기억과 남도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겨울해 잔광에 빛나는 노란색 또는 일몰한 노을빛을 바탕으로 그 안의 대상물은 갈색이나 암색으로 바르고 날카로운 칼과 송곳으로 긁고 파내어 기억 속 감정을 묘사한다.

> "나의 작품은 자전적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섬세한 선율 같은 정한(情恨)과 기쁨이 각인된 남도의 정서를 담는데 있다. 자연을 요란한 색칠로 분칠한 감성적 인상에 머무는 풍경화의 상투적 표현이 아닌 빛바랜 흑백사진 같은 색조로 과거의 시간과 장소를 회상케 하고 자연과 그 속의 삶들이 환희와 슬픈 여운을 자아내고자 한다."
>
> *- **김호원** 작가노트 中에서 -*

풍요롭고 여유로운 남도의 풍광을 시각적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향토성이 짙게 베인 따뜻한 감성과 애환을 담아 보는 이에게 진한 그리움과 아련한 기억을 더듬게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조병연** 작가는 작가적 시각에서 자연 철학의 연구와 본질 탐구를 통해 삶과 자연의 상관관계를 넓고 크게 바라보며 작품화한다.

"소박스러운 민초들과 닮아있는 듯한 구릉들의 연속된 리듬과 너른밭들, 뭉게구름, 가까운 곳에서는 바다와 인접되어 더욱 더 여기가 남도의 땅이구나 실감 난다. 그러나 사진으로 담아오거나 실경 표현에 금급한 사생으로는 너무나 아까운 마음과 정서, 그리고 정감, 표현에 미진하다고 생각되어 동네 가게에 들러 마음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나무며 마을의 유래, 재밌는 이야기 등 대화를 나누고 짧게나마 기록을 남긴다, 최대한 화면 속에 녹아들어 읽혀지는 그림을 그리려 노력했다."

*– **조병연** 작가노트 中에서 –*

조병연 작가의 사색과 통찰의 시간을 통해 차갑고 냉철한 특유의 붓놀림과 생동감 넘치는 터치로 탄생된 정감 어린 풍경들에서는 남도 문화의 얼과 수묵이 주는 힘이 느껴진다.

조용백 작가는 동양 정신과 서양 문물의 결합이라는 특유의 미학으로, 수묵의 새로운 지평을 찾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한다.

"예술가가 마음껏 어느 대상을 표현하는데 재료나 기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것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먹의 농담을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구사한다. 또한 한국화의 먹의 농담에 머물지 않고 실크스크린 기법, 릴리프 개념의 판화기법 등 흔히 현대미술에서 다양하게 다루는 혼합기법을 자유자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국화가의 표현하는 방법과는 구별된다. [중략] 불확실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바로 예술이다. 새롭다는 건 익숙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지만 한편으론 거부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만족과 완성을 향해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는 작가로 남고 싶다."

*– **조용백** 작가노트 中에서 –*

수묵을 정서적 산물로 제시하여 수묵의 범위를 확장시킨 작품들에서 수묵이 쇠퇴해가는 현재 새로운 기법과 방법론으로 항구도시 목포의 삶에 대한 정신적 세계를 흑백 모노톤의 양감으로 표현하여 보여준다.

서양화가 로버트 헨리(Robert Henri)는 '위대한 예술가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고유의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에는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시작도 끝도 없다.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라고 하였다. 따뜻한 감성과 충만한 상상력을 지닌 참여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 대상에서 받은 영감을 기록과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 독자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내포한 작품들에서 시 · 공간을 초월한 유연한 강인함과 침착한 아름다움의 정신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정신이 어떤 실재를 향해 나아가는데 지형지물이 되는 예술 작품의 표면 너머 진실이 주는 울림을 공감하고 예술의 본질에 대해 순수하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김 유 진** 큐레이터*

예술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 展

참여작가

KIM, KON-KUK 김건국

KIM, HO-WON 김호원

CHO, BYUNG-YEON 조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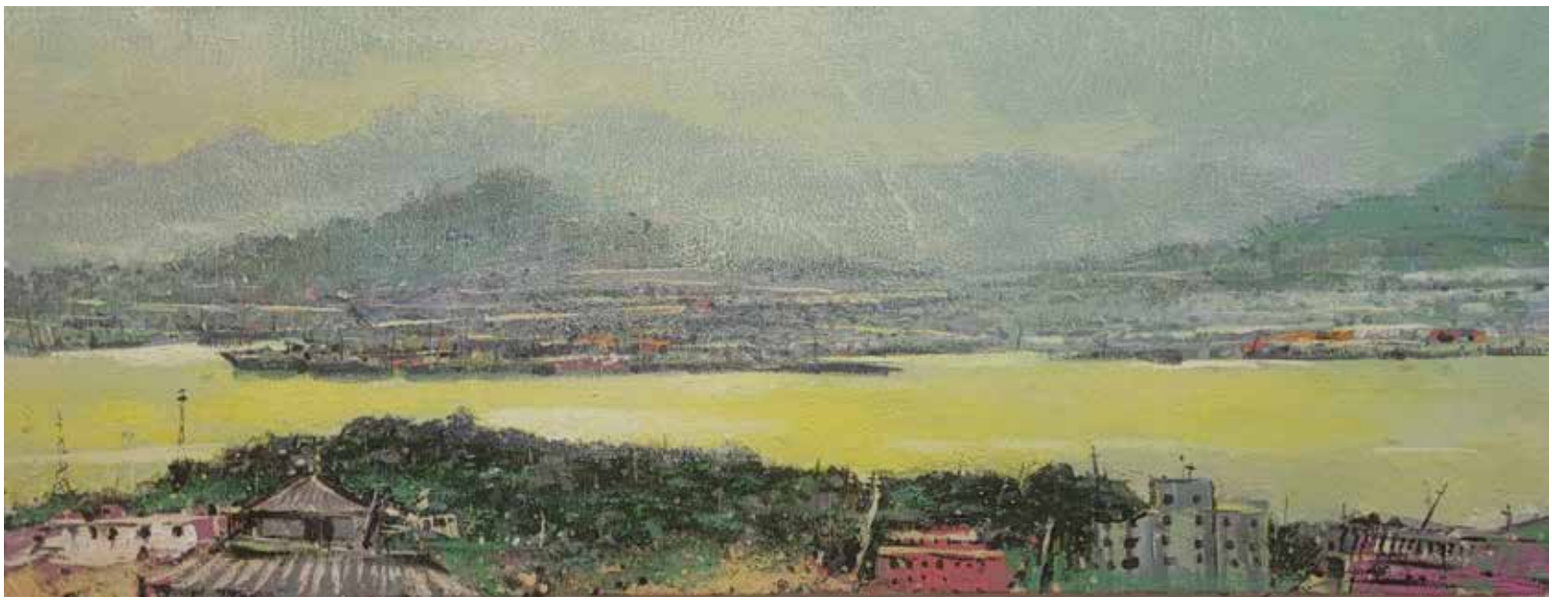
CHO, YONG-BAEK 조용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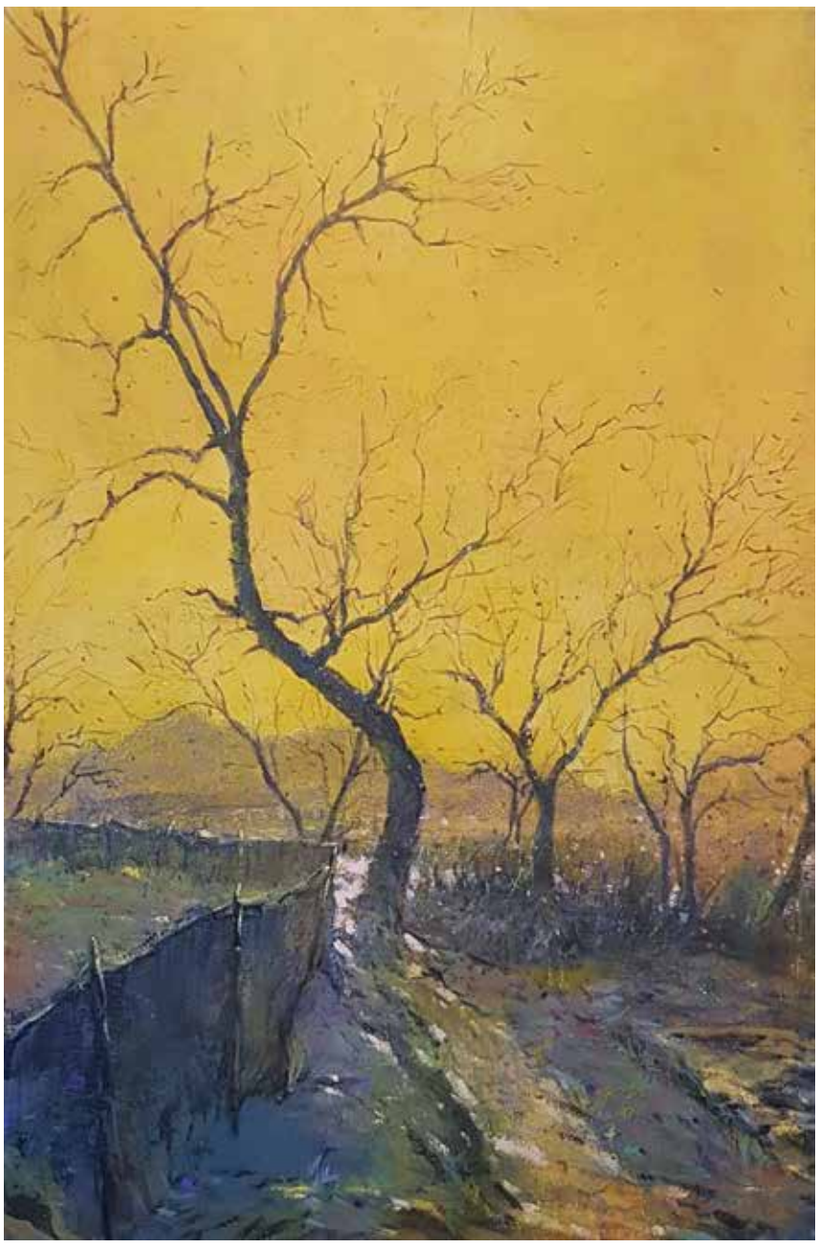


김건국
KIM, KON-K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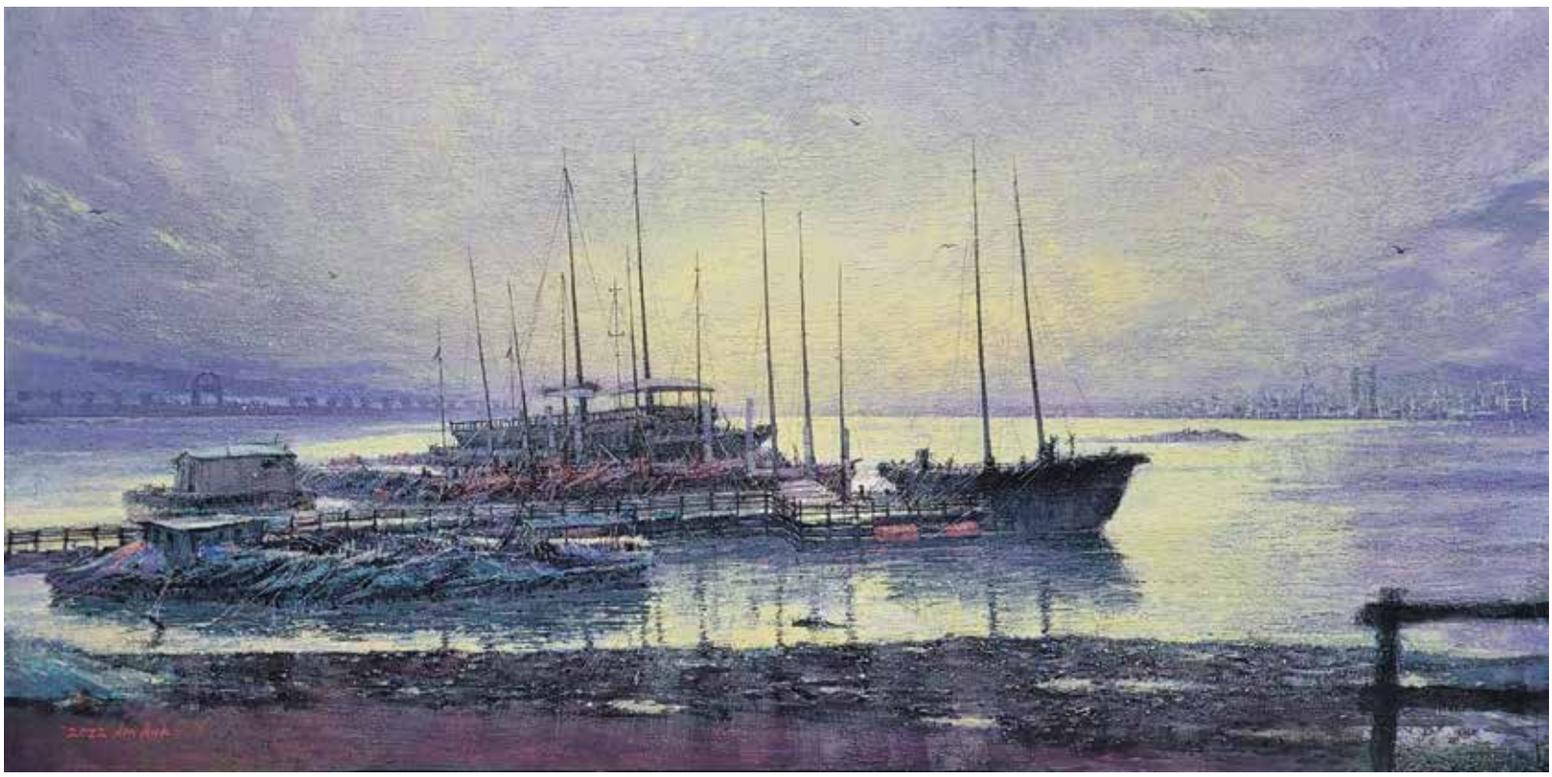
내 고향 목포에서 들여다본 정겨운 낭만 항구의 정겨움과 항구도시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목포 앞 바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바라만 보아도 가슴 설레게 하는 목포항의 풍경을 정겹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삶과 그 안에 살아있는 무수한 이야기를 따스한 오후에 햇살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 멀리 바라보이는 목포항과 삼학도의 홍어의 거리 앞에 수많은 배들의 여울진 설렘과 목포의 구도심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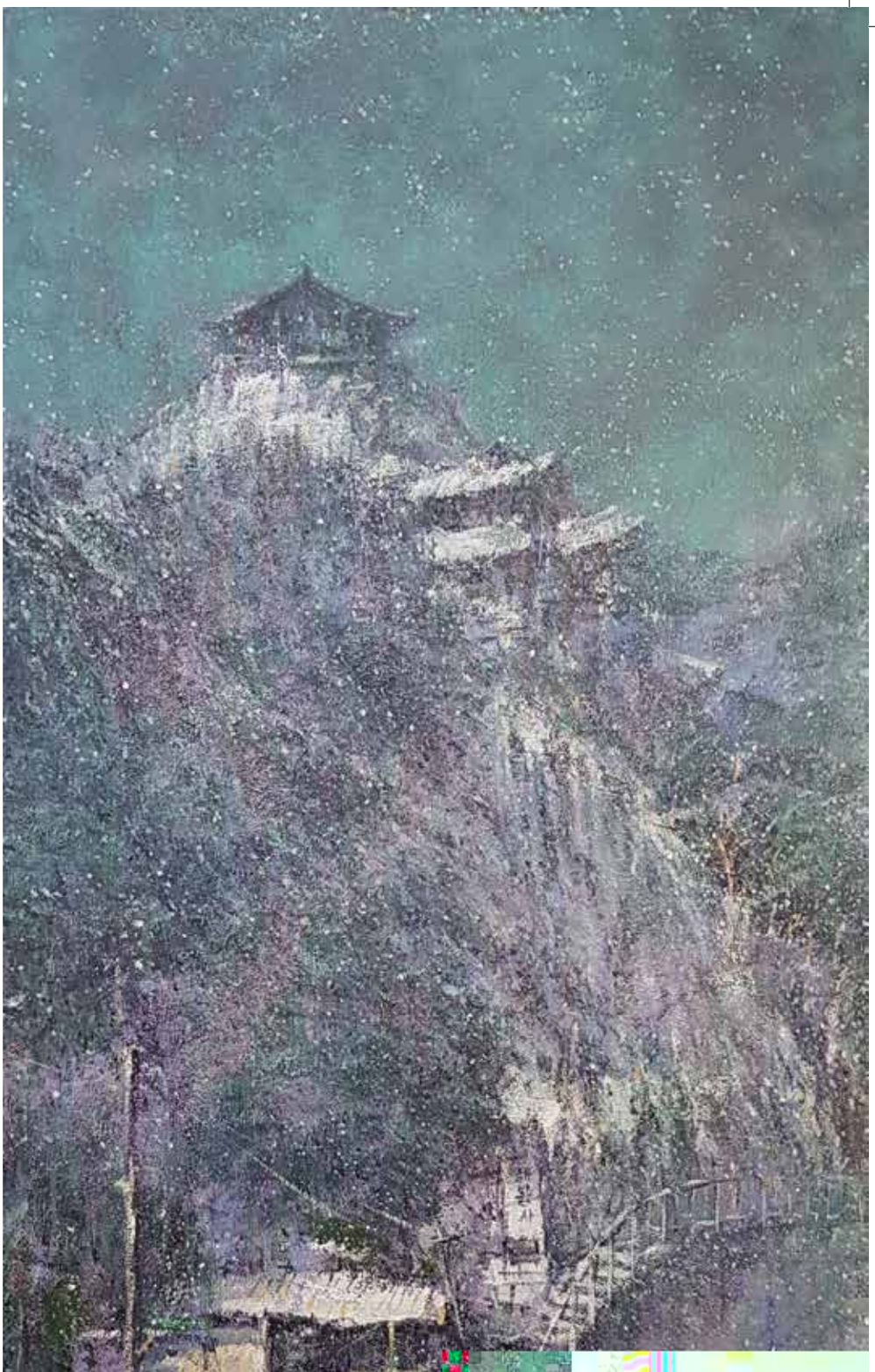
목포항 저 멀리는~
90.9×35cm, Acrylic on canvas, 2022



이로동 둘레길
60.6×90.9cm, Acrylic on canvas, 2021



하구언의 새벽 표정~
193.9×97.0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눈 내리는 대학루
58.4×116.8cm, Acrylic on canvas, 2021



해질녘 갯벌 향기~
193.9×97.0cm, Mixed media on canvas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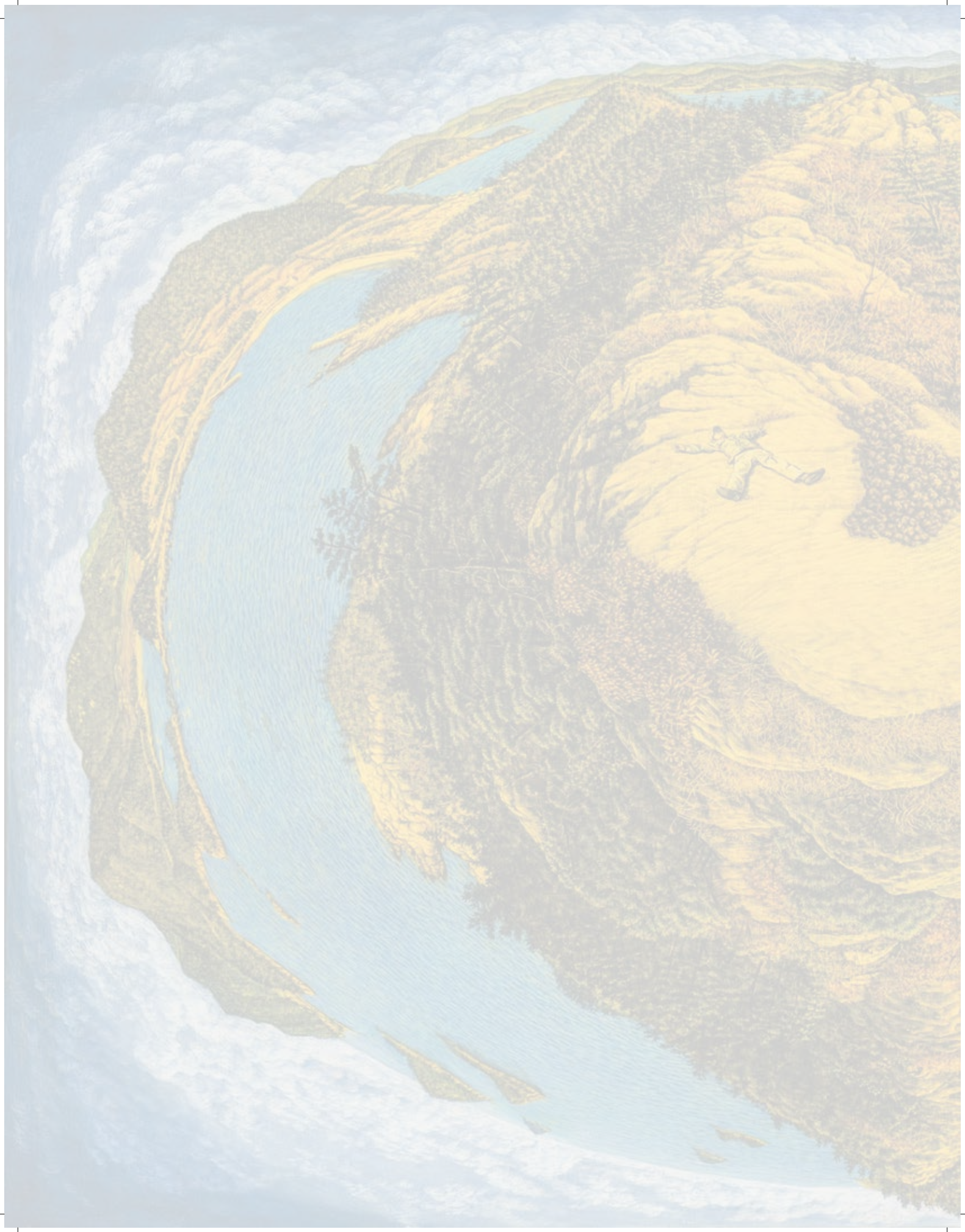
삼학도 겨울 노을
90.9×60.5cm, Acrylic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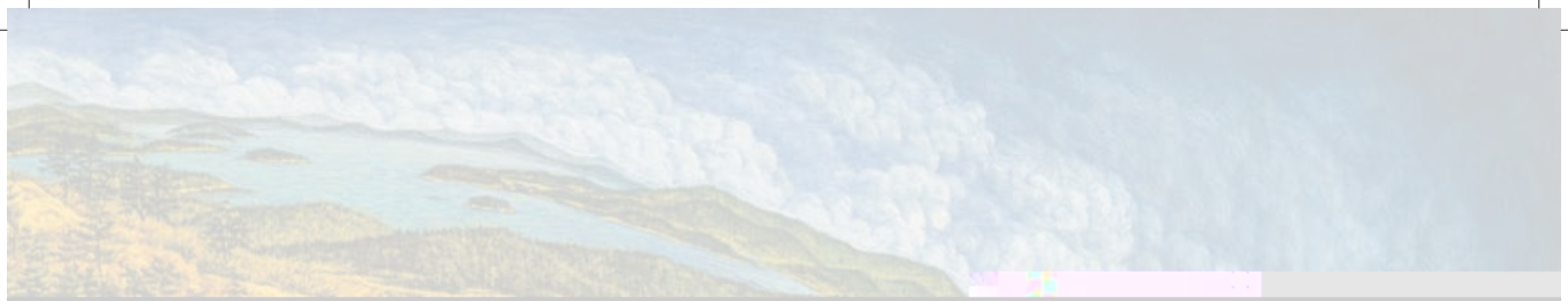


목포항 노을속으로~
116.8×58.4cm, Acrylic on canvas, 2021



목포항 빛나는 밤~
162.2×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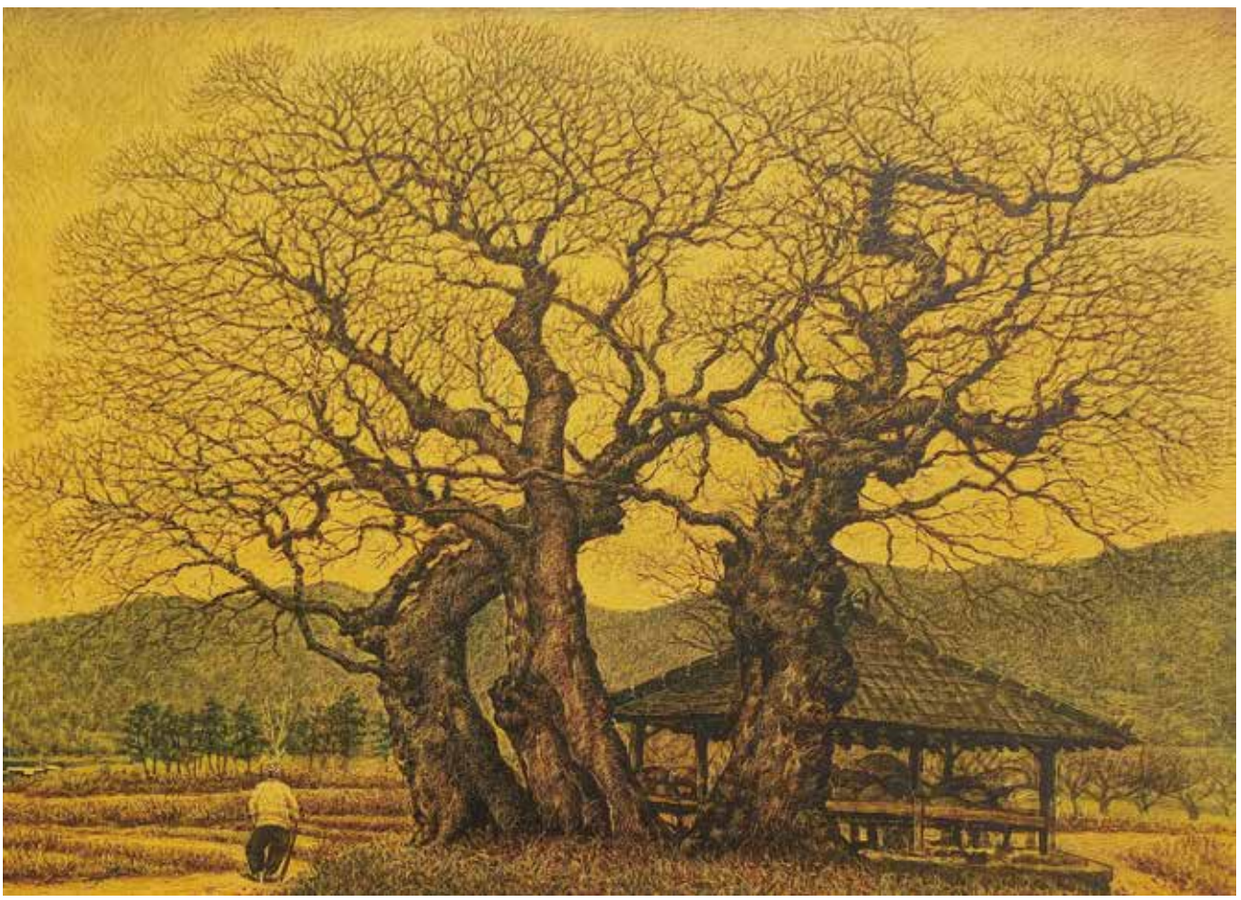


김호원
KIM, HO-WON

나의 작품은 남도의 서정성에 바탕을 둔다. 대학졸업 후 줄곧 남도 이곳저곳에 작업실을 옮기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역민과 문화 공간이나 조직을 만들어 소통하는 작업을 해오면서 느낌은 남도의 들녘과 바다는 풍요롭고 그들의 심성도 육자배기처럼 여유롭다는 점이다. 이번 작품은 어릴적 삶의 기억에 대한 서정에 맞춰진 작업들이다. 고향 보길도의 어부인 아버지와 해녀 어머니의 가난했지만 애잔한 그리움이 지금도 남아있다.
남도의 풍광을 시각적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남도의 애환과 따뜻한 감성을 담고자 하는게 나의 작품의 목표이기도한 이유다.
작품 표현 기법은 캔버스에 노란색 톤의 바탕을 칠하고 건조 후 어두운톤을 칠한 다음 칼이나 송곳 등으로 긁어 벗겨가는 스크레치 기법을 사용한다.



영산강1
100×72.7cm, Oil on Canvas, 1999



귀로
72.7×53cm, Oil on Canvas, 2022



그 길을 다시 걷다
162.2×97cm, Oil on Canva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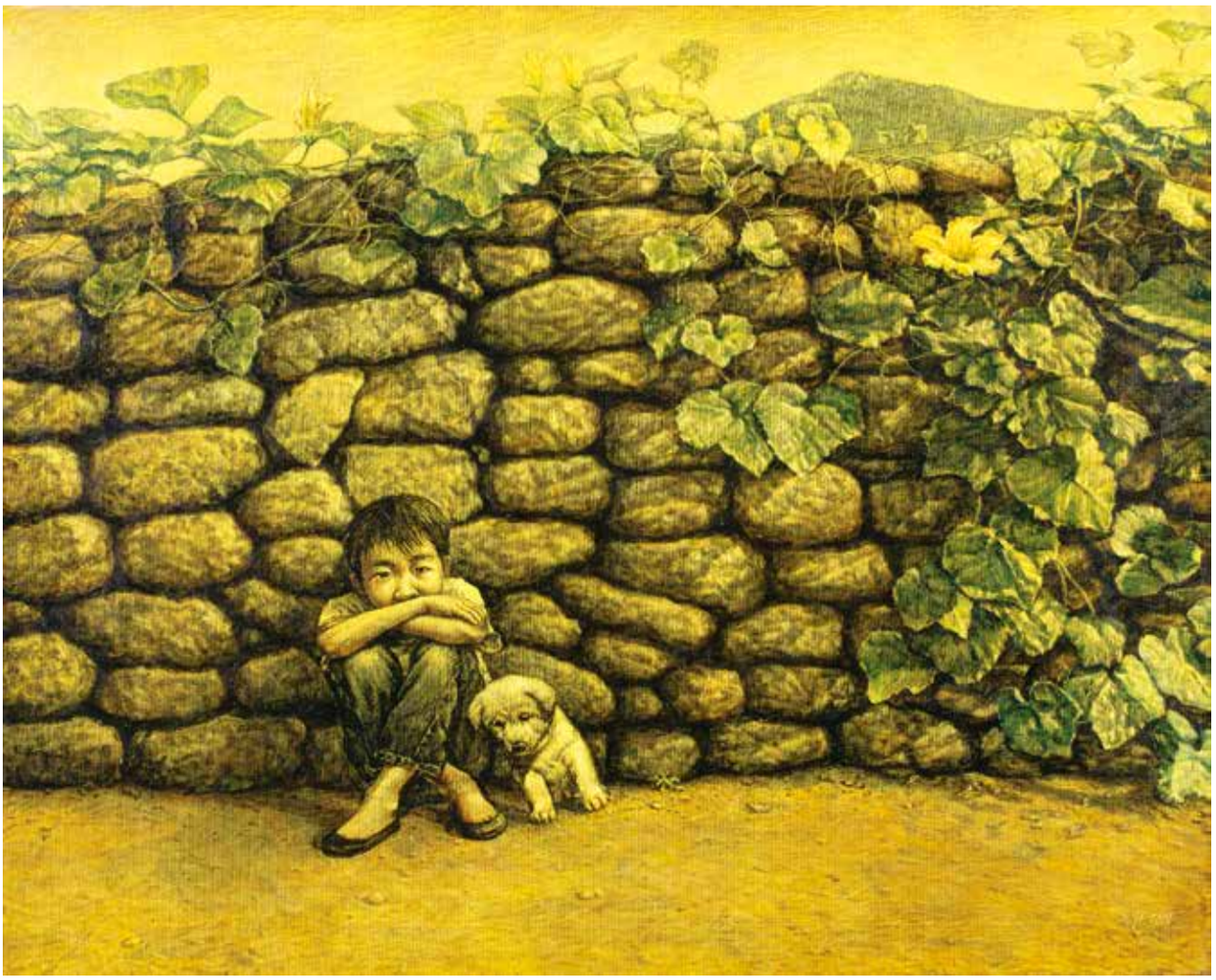
매미울음
90.9×65.1cm, Oil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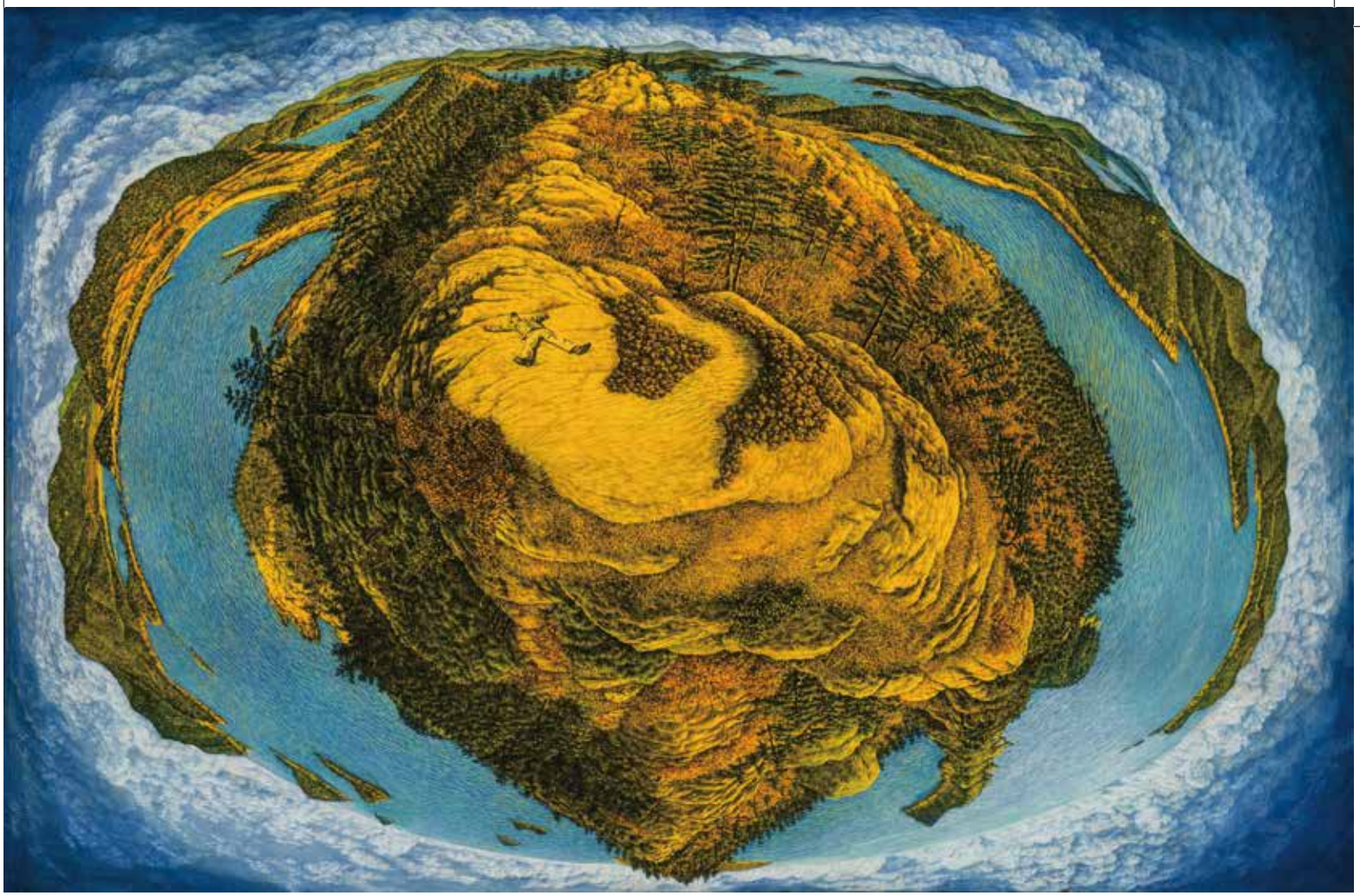
첫눈-아버지
162.2×112cm, Oil on Canvas, 2018



여우비-멀구슬나무
116.8×91cm, Oil on Canvas, 2019



장날2
90.9×72.7cm, Oil on Canvas, 2019



귀향
145×97cm, Oil on Canvas, 2014



조병연
CHO, BYUNG-YEON

흐르는 물처럼 바람과 구름처럼 자연과 함께 더 자연스러움을 작품 속에 담고 싶다!
남도의 짙은 푸른색 산과들 물..
맑은 수묵색을 구현하는 한지와 먹은 나의 작업 할 남도는 화음음을 이룬다.
맑은 먹색과 한지는 나보다 먼저 그 마음을 알고 품는다.
조상들이 그림보다 먼저 먹과 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생각하게 한다.
작업을 할때는 소재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백이 품은 길 한지가 가고자 하는 꿈을 새기며 붓을 잡는다.



달과 곰솔
142×76cm, 한지+수묵담채, 2021



유달산일등바위
35×142cm, 한지+수묵, 2022



바람 1
136×172cm, 한지+수묵, 2019



월출산心景
70×210cm, 한지+수묵담채, 2017



바람 2
136×172cm, 한지+수묵,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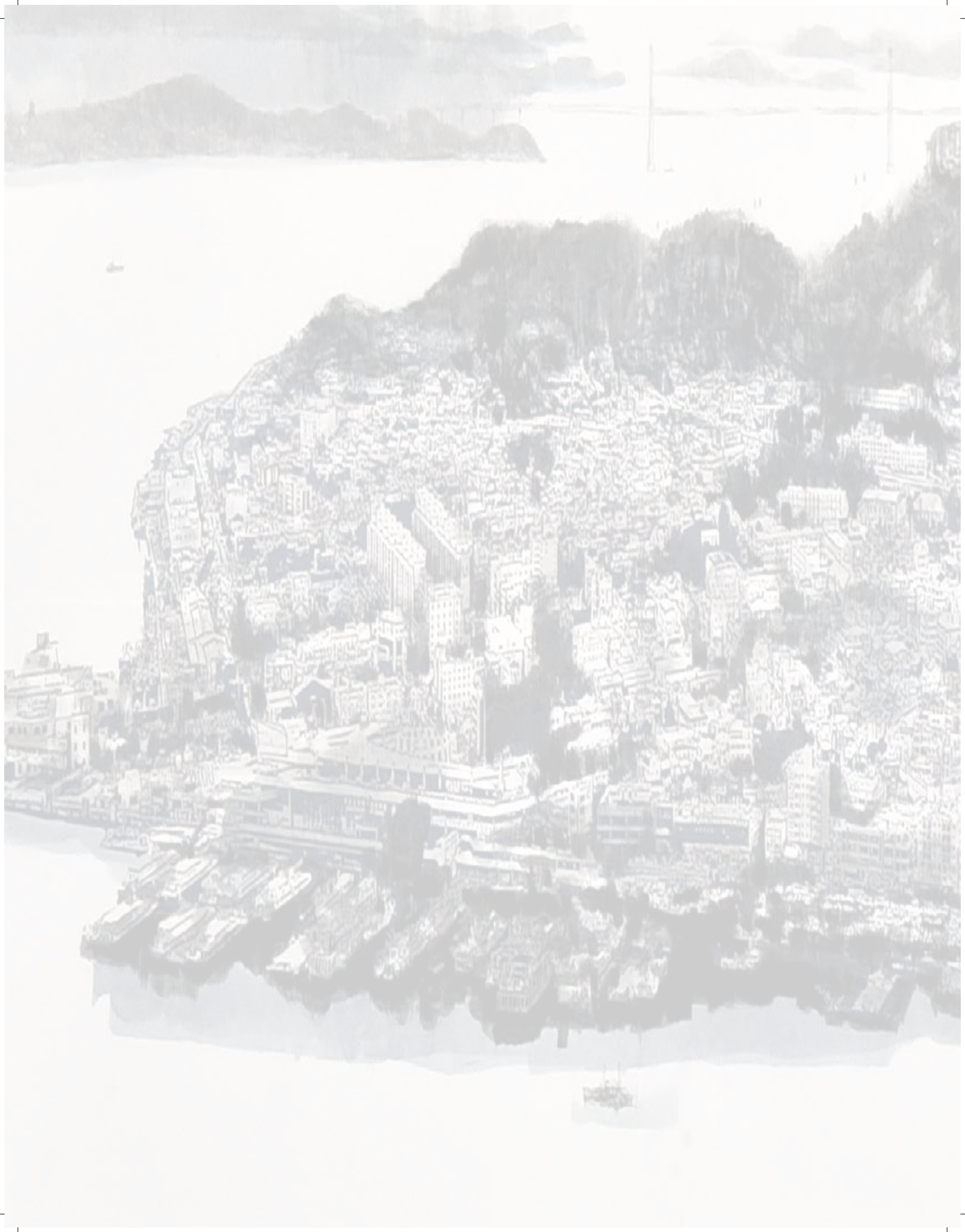
월하리 여름
76×142cm, 한지+수묵담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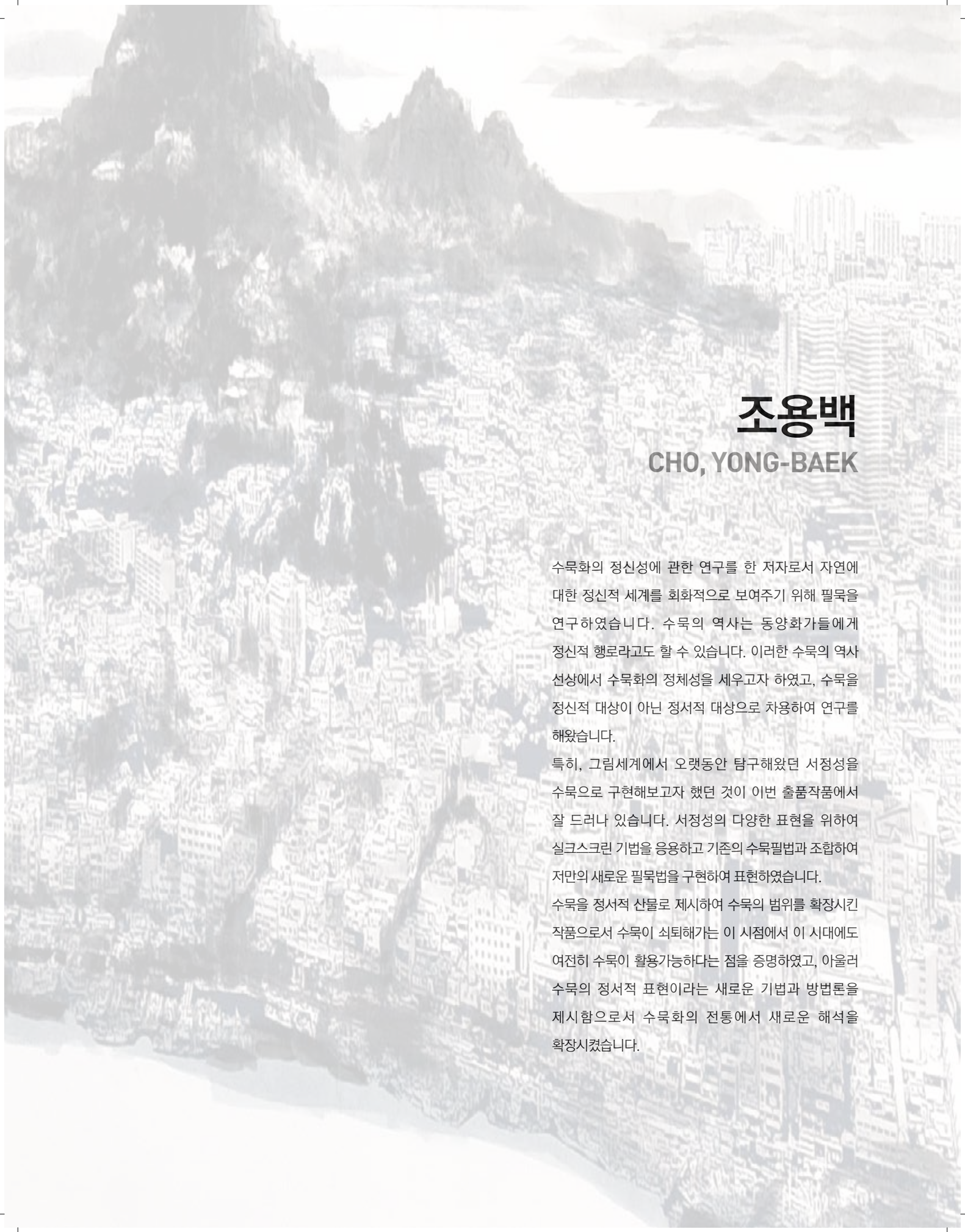


달과 매화
142×76cm, 한지+수묵담채, 2020



도갑사 가는 길
210×140cm, 한지+수묵담채, 2019





조용백
CHO, YONG-BAEK

수묵화의 정신성에 관한 연구를 한 저자로서 자연에 대한 정신적 세계를 회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묵을 연구하였습니다. 수묵의 역사는 동양화가들에게 정신적 행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묵의 역사 선상에서 수묵화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였고, 수묵을 정신적 대상이 아닌 정서적 대상으로 차용하여 연구를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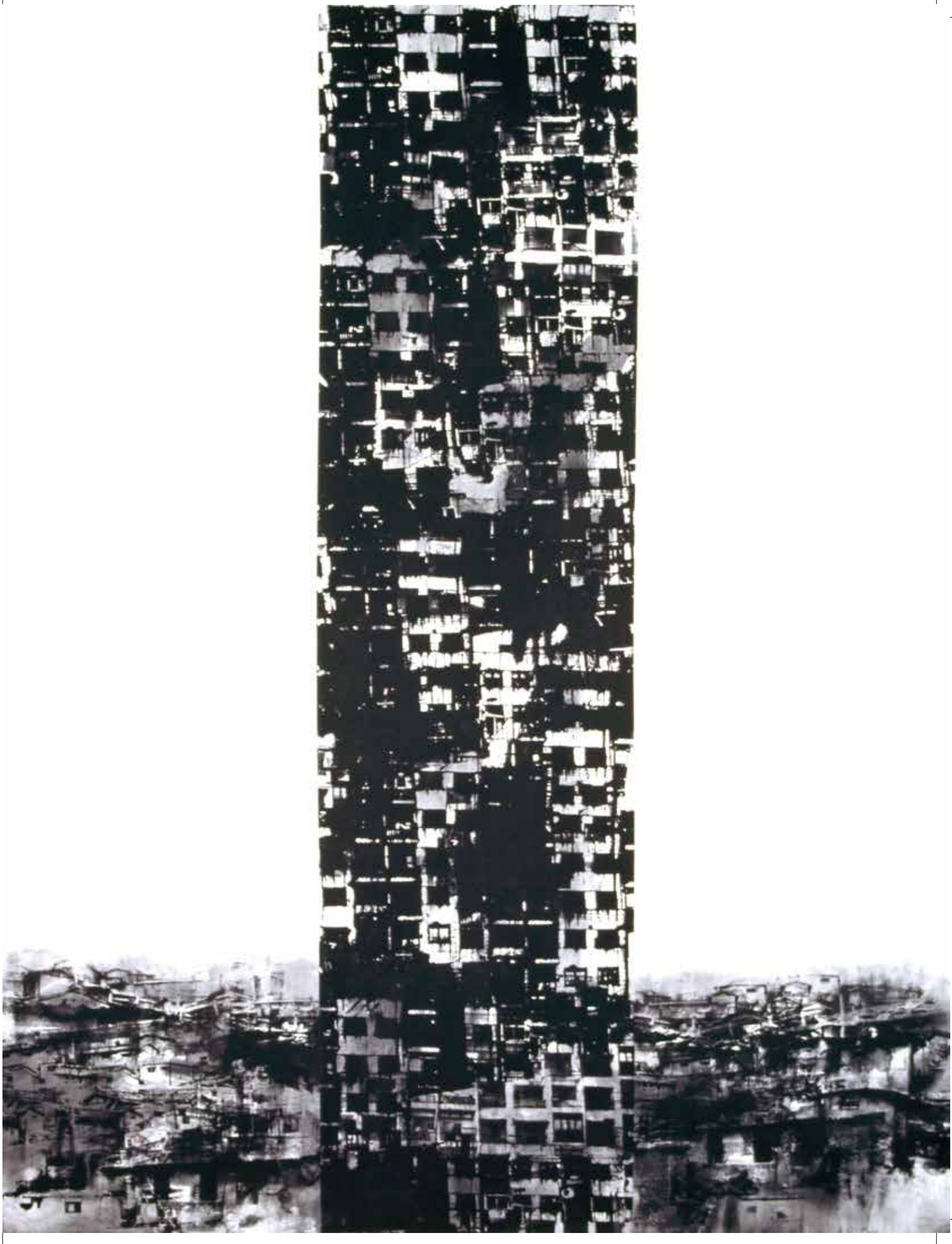
특히, 그림세계에서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서정성을 수묵으로 구현해보고자 했던 것이 이번 출품작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정성의 다양한 표현을 위하여 실크스크린 기법을 응용하고 기존의 수묵필법과 조합하여 저만의 새로운 필묵법을 구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수묵을 정서적 산물로 제시하여 수묵의 범위를 확장시킨 작품으로서 수묵이 쇠퇴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묵이 활용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아울러 수묵의 정서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서 수묵화의 전통에서 새로운 해석을 확장시켰습니다.



▲ **수묵서정-항구**
70×50cm, 한지+수묵 +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12

정지된 풍경-대화 ▶
200×320cm, 한지+수묵 +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13





수묵서정-항구
100×45cm, 한지+수묵+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12



수묵서정 1, 2
90×200cm(2), 한지+수묵+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12



수묵서정
50×160cm, 한지+수묵+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06



수묵서정-서산동
147×118cm, 한지+수묵+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02



수묵서정-회색도시
130×165cm, 한지+수묵+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12



목포항 유달산
540×230cm, 한지+수묵+혼합재료+실크스크린, 2021

참여작가 약력 Profile



김건국
KIM, KON-KUK

1962년 목포 출생
세종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90 제1회 개인전 (청남미술관-서울)
2017 제2회 개인전(목포성옥기념관 별관갤러리)
2022 제3회 개인전(갤러리 이음-전라남도교육청)
2022 제4회 초대전(하랑갤러리-전라남도인재개발원)
1990 제9회 대한민국미술대전(과천국립현대미술관)
2000 한.일 국제 교류전(대림아트갤러리)
2000 한.러 국제 교류전(갤러리아 아카데미 아트갤러리. 러시아)
2019 현대 한.일 국제 교류전(목포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아리수, 서울)
2017 노적봉 회원전(2017~2021)
2022 목포 풍경전(목포문화예술회관)
2022 아트목포 2022(목포문화예술회관)
2022 남도의 향기전(목포문화예술회관)
2022 김암기 오마쥬전(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2022 강진의 색(강진 아트홀)

현재
목포미협 회원, 목포art70 회장, 노적봉 회원
한·중서화정예작가 회원, 목포공업고등학교 교사

작품소장처
목포시청, 논현동 PAL갤러리, (주)금아건설, (주)광장엔지니어링
(유)신일기업, 목포공고



김호원
KIM, HO-WON

1964년 완도 출생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20 서울 갤러리 내일 초대전

2019 고흥 도화헌미술관

2016 서울 퀄리아갤러리 초대전

2014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목포 문화예술회관

2012 서울 경인미술관. 목포 문화예술회관

2011 광주 나인갤러리 초대전

2009 서울 고동갤러리 초대전

2007 순천 주영갤러리 초대전

2005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고흥 도화헌 미술관, 목포 문화예술회관

2000 서산 전람회의 그림 초대전

1998 광주 캠브리지갤러리 초대전, 목포 문화예술회관

아트페어 & 기획부스전

2015 한국 구상 대제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5 광주 국제아트페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4 광주시립미술관 기획 '민주인권평화전(오월의파랑새)' (광주시립미술관본관)

2009 예술의전당 기획 'Art in Superstar'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창원 성산아트홀)

2008 예술의전당 기획 '미술과 놀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07 대한민국 국제현대미술 EXPO (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기타 그룹전 300여회

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광주교육청 교육홍보관, 전남도립미술관, 목포시청

참여작가 약력 Profile



조병연

CHO, BYUNG-YEON

1963년 전남 영암 출생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개인전

2022 淡白의 향기 마음에 담고 초대전(미룸겔러리, 대전)
2021 매화를 탐하다 초대개인전(성옥 갤러리, 목포)
2020 임하매옥도 조병연 탐매전 (행촌미술관, 해남)
2019 남도 수묵으로 풀어내다 (하정웅미술관, 영암)
조병연전(수윤아트스페이스, 해남)
2018 거인의 정원에 간 예술가~조병연의 임하일기
(행촌미술관,해남)
2017 기억,흔적,사물들 (미룸갤러리, 대전)
조병연 水墨繪畵展 땅끝 달마산 미황사 그리고
다도해(땅끝미술관, 행촌미술관, 해남) 외 개인전10회

초대전 및 단체전

2021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땅끝순례문학관, 해남)
2021 전남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전남도립미술관, 광양)
2020 아트 워크을 걷다-삶의 흔적, 축적된 시간전
(양림미술관, 광주) 신 소장품 전 (행촌미술관, 해남)
2019 행촌문화재단 신소장품전 (수윤아트 스페이스(해남)
화첩기행 봄 (행촌미술관, 해남)
국도1호선전 (목포)
2018 전라굴기전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목포, 진도 레즈던스참여)
南道밥상展 (인영갤러리, 서울)
수묵, 동방수묵지몽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전)
(상하이, 홍콩 한국문화원)
2017 전남국제水墨프레비엔날레(목포)
水墨南道南風(행촌미술관, 해남)
千佛 영구설치 (해남 달마산 미황사)
전라도의여름(롯데갤러리, 광주)
“다므기展”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風流南道 ART프로젝트 (행촌미술관, 해남)
영암시간을걷다老巨樹(G&J광주전남갤러리, 아천미술관)
南道의풍경展(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2016 월출산그림으로만나다(한마음아트홀, 영암삼호)
水墨을 사유하다 (G&J광주전남갤러리, 서울)
영호남 수묵 교류전 (목포, 진도 운림산방)
2015 풍류 남도 만화방창(행촌미술관, 해남)
아름다운 동행전 (광주 시립미술관)
기타 단체초대전 200여회

주요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경기도립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행촌문화재단, 미황사,
목포시청,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한국병원

수상경력

2022 제12회 서암 전통문화대상 수상



조용백

CHO, YONG-BAEK

1960년 목포 출생

단국대학교대학원(조형예술대학원 졸업) 미술학 박사

논문/ 수묵화의 정신성 연구(필묵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개인전

서울 예술의전당/ 갤러리 상/ 목포 KBS초대전 / MBC초대전외 14회

단체전

2021년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출품(목포문예회관)

2005년 신소장품전(국립현대미술관)외 200여회

수상내역

1993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1993 전라남도 미술대전 대상 (남도 예술회관)

1993 전국 무등 미술대전 대상 (광주 문예회관)

1994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1995 한국화 특장대전 대상 (광주 문예회관)

1997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1999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무안 오승우미술관,

목포 에에랄드 퀸, 목포시청, 목포 검찰청,

목포 법원, 목포 경찰서, 서해 지방해양청,

목포 mbc, 목포kbs, 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목포 신안비치호텔

2022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특별기획

예술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 展

THE EXHIBITION of ARTISTIC SPIRIT: BEYOND TIME AND SPACE

주최·주관	목포시
발행처	목포시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인쇄일	2022. 10. 30
발행일	2022. 10. 30
전시·기획	김유진
디자인	화성디자인 T. 061-274-1333

본 팜플렛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참여작가와 목포시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 展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 061-270-8300